



신흥국주식펀드, 자금 유입 이어짐

1.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순유입 지속

- 외국인 중 뮤츄얼펀드는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되는 펀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가짐
- 달러 약세와 투자심리 회복으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
-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9월부터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자금 유입 규모 크게 증가

2. 미국 채권펀드 순유입 규모 감소

- 11월 이후 달러 강세가 본격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채권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
- 유럽채권ETF는 10월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유럽 채권펀드와 ETF는 2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음
- 미국주식ETF는 최근 4주간 자금 유입이 이어짐. 지난주 미국주식펀드와 ETF로는 47.5억달러 순유입

3. 신흥국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비중 확대

- 신흥국주식펀드 중에서는 2012년 16% 수준이었던 중국의 평균 편입 비중은 2020년 10월말 32%로 늘어남
- 신흥국펀드 안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순유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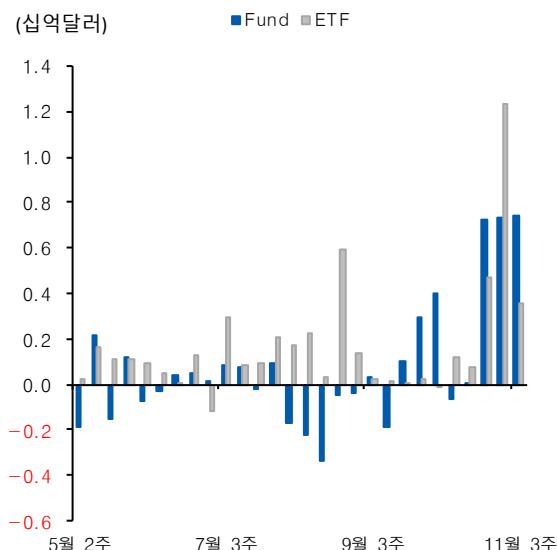
11월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뮤츄얼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패밀리오피스, 헤지펀드 등의 주체로 나눌 수 있으며, 국무펀드와 헤지펀드 등이 스마트머니로 분류된다. 뮤츄얼펀드는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되는 펀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달러 약세와 투자심리 회복으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 개발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흥국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좋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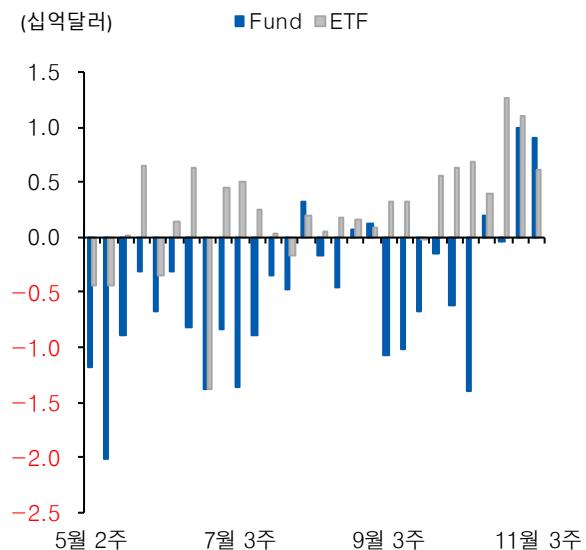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는 9월부터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 ETF 뿐만 아니라,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크게 늘어났다.

신흥국주식ETF는 9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1월에는 주간 유입규모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차트1]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입 증가



[차트2] 신흥국주식펀드, 자금 유입 지속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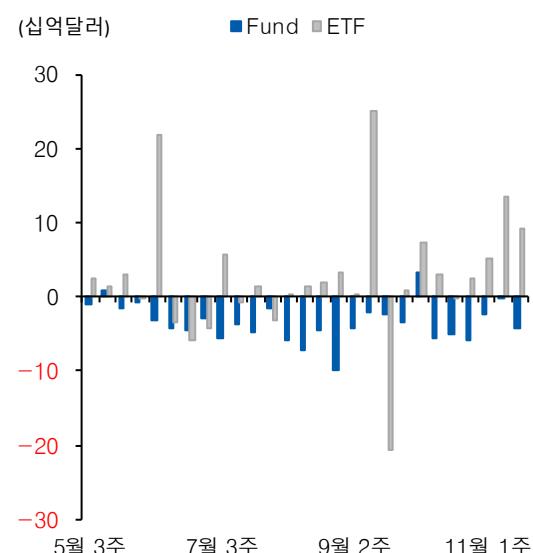
2. 미국 채권펀드 순유입 규모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채권펀드는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져왔다. 하지만 11월 이후 달러 강세가 본격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채권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미국 채권펀드와 ETF의 2분기와 3분기의 평균 주간 순유입 규모는 114억달러와 118억달러였다. 11월의 평균 순유입규모는 7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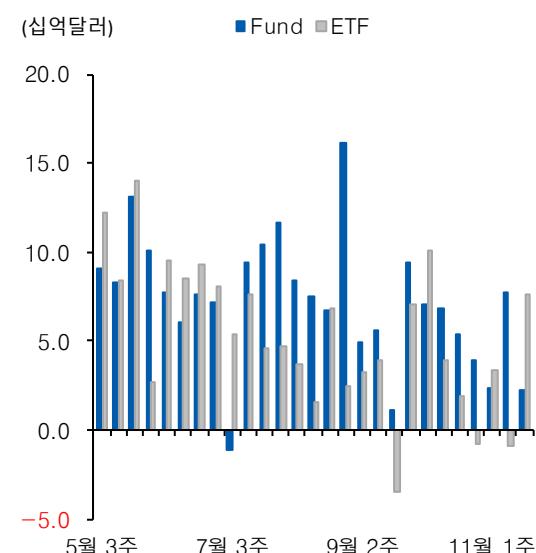
유럽채권펀드와 ETF, 신흥국채권펀드와 ETF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금 유입은 크게 늘었으나, 10월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유럽채권ETF는 10월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유럽 채권펀드와 ETF는 2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전주 유럽채권펀드와 ETF에서는 7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자금 유입규모가 줄어드는 미국 채권펀드와 ETF와는 달리, 미국주식ETF는 최근 4주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주식펀드와 ETF로는 47.5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주식ETF의 자금 유입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주식 ETF는 11월 중순 이후 주간 자금 유입 규모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차트3] 미국주식 ETF, 자금 유입



[차트4] 미국채권펀드와 ETF, 자금 유입 규모 감소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신흥국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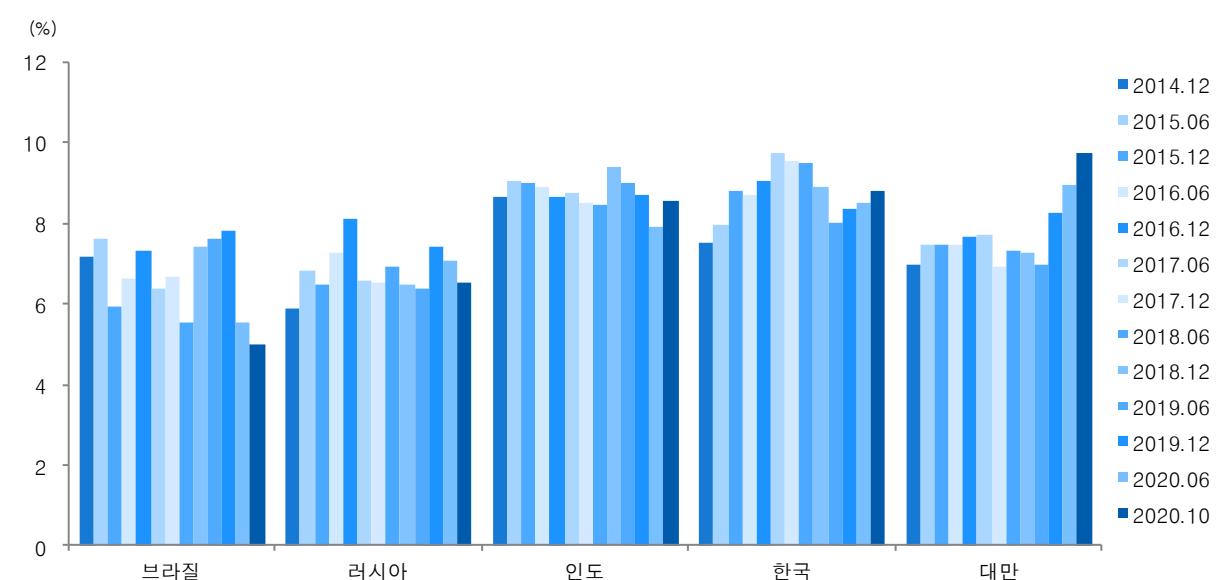
신흥국주식펀드 중에서는 2012년 16% 수준이었던 중국의 평균 편입 비중은 2020년 10월말 32%로 늘어났다. 중국 편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신흥국 평균 비중은 크게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2020년에는 중국(26.3%→32.7%)과 대만(8.3%→9.8%), 한국(8.4%→8.8%) 등 아시아 국가의 편입 비중이 주로 늘어났다. 반면, 연초 이후 브라질(7.8%→5.0%)과 러시아(7.4%→6.6%)의 편입 비중은 줄어들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원자재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심각한 점이 공통적이었다.

2012년 대만의 투자 비중은 4.8%로 우리나라의 7.7%보다 낮았지만, 2020년 10월에는 대만의 투자비중은 9.8%로 우리나라의 8.8%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신흥국펀드 안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흥국주식 펀드로의 자금 유입과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의 비중 확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도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긍정적이다.

[차트5]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 비중은 연초 이후 증가 추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